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중소상공인 상생 강화한다 '착한상점' 오픈

2022. 8. 29.

- **전국 중소상공인 상생 전문관 '착한상점' 오픈 별도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하여 고객 접점 강화**
- **'착한상점'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의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 강화 및 자체 상생 활동 확대 예정**

2022. 8. 29. - 쿠팡이 전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관인 '착한상점'을 오픈한다.

'착한상점'은 마케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쿠팡이 중소상공인과 진행한 상생 기획전들이 포괄적 개념의 '기획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되던 것과 다르게 '착한상점'은 별도의 상위 판매 페이지로 개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전국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여성기업,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각 계층의 중소상공인도 1800만명에 가까운 쿠팡 활성 고객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이번 '착한상점' 오픈을 통해 기존의 협업 강화는 물론 쿠팡 자체적인 소상공인 대상 상생 활동을 확대하여 상생과 성장 지원이라는 '착한상점'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쿠팡이 추진 중인 지역 중소상공인 상생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19년 대비 177% 성장하며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2021년 쿠팡의 소상공인 파트너 수는 2015년 대비 1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판매 품목 수도 2019년 대비 523% 증가했다. 작년 한 해 쿠팡에서 이루어진 중소상공인 총 거래금액은 8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는 "이번 '착한상점' 오픈을 통해 기존 진행해 왔던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활동을 본격 강화하는 만큼, 고객들의 관심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각종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국 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